

抽象의 特性和 感化的 用法

李 鍾 喆

(호서대 강사)

目 次	
I. 序 論 II. 抽象의 特性 2.1 抽象과 言語 2.2 抽象의 特性 2.3 抽象의 兩面性	III. 感化的 用法과 抽象의 特性 3.1 感化的 用法의 概念 3.2 感化的 用法의 표현 方法 3.3 抽象의 特性의 活用 IV. 結 論

I. 序 論

본고는 효과적인 언어 사용을 하기 위하여 언어사용자들이 알아야 하는 언어의 感化的 用法의 表現방법을 抽象의 特性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의 感化的 用法의 表現방법에 대한 연구사는 朴甲洙(1989)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국외에서는 S. I. Hayakawa(1964), 국내에서는 李庸周(1959, 1963), 朴甲洙(1965, 1969) 등이 대표적 연구물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물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感化的 表現 方法들을 좀더 체계적이고 원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 2 장에서는 抽象의 特性을 段階性과 方向性으로 보고, 사용된 언어의 의미를 형성하는데 抽象의 段階와 方向이라는 두 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먼저 밝히겠다. 제 3 장에서는 感化的 用法의 개념을 정립하고, 感化的 表現방법을 음성적 요소와 의미적 요소를 기준으로 나누고, 의미적 요소를 이용한 表現방법 중 중요한 여러 가지를 抽象의 特性을 활용하여 설명하겠다.

II. 抽象의 特性

2.1 抽象과 言語

抽象의 定義에 대하여 金鳳柱(1988:65)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추상이라 함은 어떤 복잡한 몇 개의 대상으로부터 각기 다른 특성을 제거하고 서로 같은 특성만을 종합하는 정신적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나무들에서 각기 다른 크기나 모양 등은 무시하고, 서로 같은 나무 골격이나 색깔 등만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행위나 과정이 그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실체 A가 있고 그와 비슷한 실체 B가 있으면 그 둘 사이에 다른 속성은 생각지 않고 같은 속성만을 고려하여 A와 B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같이 抽象은 서로 다른 대상들에서 차이점은 무시하고 공통되는 속성만을 선택하여 그 대상들을 동일한 부류로 종합하는 사고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抽象의 필요성과 언어의 抽象性에 대하여 O. Jespersen(1924:63)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계는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뾰족 지 나가고 있는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사고로 또는 적어도 언어로 어떤 다소 고정된 점들, 어떤 평균들을 만들어 낸다. 실체는 결코 우리들에게 어떤 평균적인 대상을 제시하지 않으나 언어는 제시한다. 왜냐하면 '사고'와 같은 단어는 하나의 실제적으로 주어진 사물을 나타내는 대신에, 공통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나 물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 수많은 대상들의 평균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상과 생각을 의사소통하기를 원한다면, 부류개념에 대한 다소 추상적인 명칭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사과'는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어떤 개개의 사과와도 비교해 보면 추상적이고 '과일'은 훨씬 더 높은 정도로 추상적이다. 그리고 같은 사실이 '빨강, 노랑' 등등과 같은 단어들에 한층 더 해당된다. : 언어는 어디에서나 추상적인 단어들 속에서 움직이되, 단지 그 추상의 정도는 무한히 다르다.

인간은 이와 같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의 구성물에 대하여 抽象을 해야만 한다. 抽象을 통하여 概念이 형성되고 그것에 언어기호가 결합되어 언어가 生成된다. 따라서 모든 언어는 抽象性을 띤다. S. I. Hayakawa(1964:180)에서

는 抽象의 必要性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러 특성들을 빼놓는 이 추상의 과정은 불가결하게 편리한 일이다. 다른 예로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네 가정으로 구성된 고립된 마을에 살고 있고 각 가정은 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의 집은 '마가'로 지칭되고; B의 집은 '비요'; C의 집은 '카타', 그리고 D의 집은 '펠렐'로 지칭된다. 만약에 새 집-여분의 집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토의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 마을에서의 의사소통의 평범한 목적을 위하여 매우 만족스럽다. 우리는 현존하는 집의 네 단어 중 어떤 것으로도 계획된 집을 지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단어는 너무 특수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가, 비요, 카타, 펠렐'들과 공통된 어떤 특징들을 지닌, 그러나 A의 집, B의 집, C의 집 또는 D의 집도 아닌 어떤 것'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더 높은 추상의 단계에서 발견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복잡하여서 매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略語가 발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집'이란 소리를 선택한다. 그러한 필요성에서 단어들이 등장한다. - 그것들은 속기의 한 형태다. 하나의 새로운 抽象의 발명은 커다란 진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토의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 이 경우에 다섯째 집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축하거나, 여행에서 보거나, 꿈꿀지 모르는 모든 미래의 집들에 대한 토의를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는 세계에 대하여 인식하고, 서로서로 의사소통하고, 토의하기 위해서 부단히 변화하고 동일하지 않은 세계의 구성물에 대하여 抽象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언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抽象性을 띠고 있다.

2.2 抽象의 特性

언어는 抽象을 통하여 만들어지므로, 언어 사용과 抽象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은, 그 대상에 대하여 화자가 선택한 抽象의 段階와 方向에 의해 달리 형성된다. 본고에서는 抽象의 特性을 段階性과 方向性이 두 가지로 보고, 이에 대해 고찰하겠다.

2.2.1 段階性

하나의 개념은 둘 이상의 다른 대상들에서 동일한 속성을 추상한 관념이다. 논리학에서는 그 대상들을 개념의 외연(extention)이라 하고, 그 동일한 속성을 개념의 내포

(intension)라고 했다. 추상된 관념인 개념이 기호화되면, 그 개념은 언어의 의미로 다루어진다.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은 抽象의 段階에 따라 달리 형성된다. 즉, 높은 抽象의 段階에서는 개념의 외연은 증가하고 내포는 감소되고, 낮은 抽象의 段階에서는 개념의 내포는 증가하고 외연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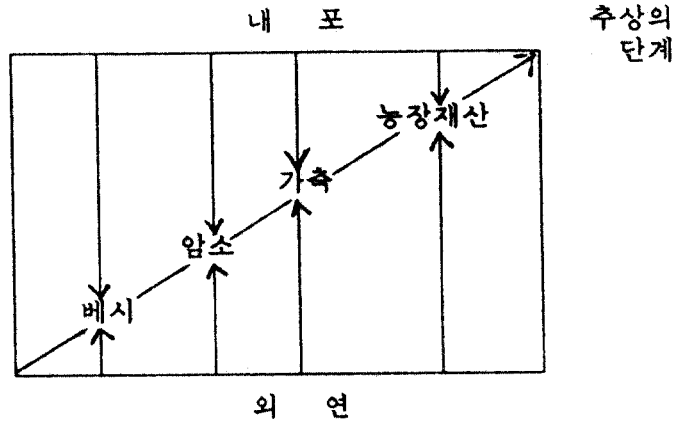
S. I. Hayakawa(1964:177-179)에서는 '抽象의 사다리'(ABSTRACTION LADDER)라는 도표를 통하여, '베시'라고 명명된 암소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경험의 '대상'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의 신경체계(모두 불완전한)와 외부의 어떤 것과의 상호작용이다. 베시는 독특하다. - 우주 내에서 모든 점에서 그 암소와 똑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유사한 모양, 기능, 습관을 갖고 있는 다른 동물들과 베시가 닮은 자질들을 과정-베시에서 자동적으로 추상하거나 선택한다. 그리고 베시를 '암소'로 분류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시는 암소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른 '암소들'과 베시와의 유사점들만 주목하고 차이점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큰 간격을 뛰어오르고 있다. : 전자적-화학적-신경적인 많은 사건의 연속인, 역동적인 과정-베시에서 비교적 정적인 '관념', '개념' 또는 단어로. 이와 관련하여 '추상의 사다리'라고 명명된 도표를 참조하라.

도표가 설명하듯이, 우리가 보는 '대상'은 최저 단계의 추상이다. : 그러나 그것 역시 추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의 베시인 과정의 여러 특성들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베시'(암소₁)라는 단어는 최저의 언어적 단계의 추상이고, 여러 특성들을 무시하고 있다. - 어제의 베시와 오늘의 베시의 차이점들, 오늘의 베시와 내일의 베시와의 차이점들을 무시하고, 단지 유사점들만 택하고 있다. '암소'란 단어는 베시(암소₁), 대이지(암소₂), 로지(암소₃) 등 간의 유사점들만 선택하므로, 베시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것을 무시한다. '가축'이란 단어는 베시가 돼지, 닭, 염소, 양 등과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들만 선택하거나 추상한다. '농장재산'이란 단어는 베시가 헛간, 울타리, 가축, 가구, 식물 산출하기, 트랙터 등과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특징들만을 추상하고, 따라서 그것은 매우 높은 단계의 추상에 있다.

앞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베시'에 대한 개념의 내포(공통 속성)는 추상의 단계가 높아감에 따라 감소되고 외연(공통 속성을 지닌 대상)은 증가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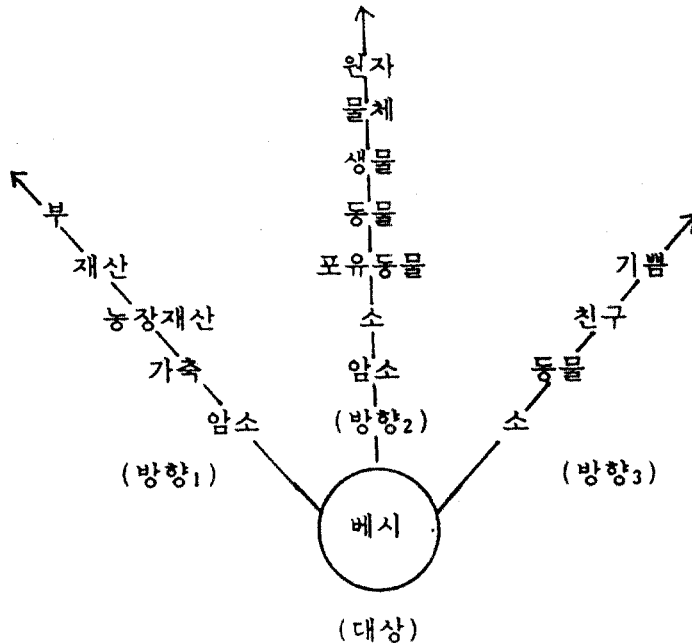
우리는 '배시'를 보면서, "저것은 암소다.", "저것은 가축이다.", "저것은 농장재산이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배시'라고 명명된 어떤 대상의 개념은 언어사용자가 선택한 추상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그에 따라서 그 개념을 표현하는 언어도 달리 선택된다. 언어의 표현과 이해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현) 대상 \longleftrightarrow 추상(단계성) \longleftrightarrow 개념 \longleftrightarrow 언어기호 (이해)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이렇게 형성된 개념은 언어적 차원에서의 사용된 언어의 의미가 되고, 언어사용자의 의도를 고려한 차원에서의 사용된 언어의 의미는 이 개념과 더불어 언어가 놓인 문맥과 상황에 의해 정확히 결정된다.

2.2.2 方向性

어떤 대상에 대하여 抽象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공통 속성은 사람들의 관심의 방향에 따라 다르게 선택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대상이라도 공통 속성이 향하는 추상의 방향에 따라 그 개념이 달리 형성된다. 이것을 다음의 도표에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베시'라는 대상을 보면서, "저것은 내 재산이다.", "저것은 생물이다." 또는 "저것은 내 친구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화자가 선택한 추상의 방향에 의해 '베시'라는 대상에 대한 개념이 달리 형성되어서 언어 표현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방향1은 경제적 방향, 방향2는 자연과학적 방향, 방향3은 정서적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방향2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고정성이 강한 방향이고, 방향1은 시대성을 띠는 방향이고, 방향3은 개인의 정서에 의해 선택된, 유동성이 강한 방향이다. 抽象의 방향은 시대, 지역, 사회,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방향3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정서적 태도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抽象의 방향은 대략 사회적으로 공인된 방향과 개인적으로 선택한 방향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것에 따라 抽象은 사회적 抽象과 개인적 추상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抽象의 언어 사용이 은유(metaphor)이다. I. A. Richards(1981 [1936]: 49-50)에서 은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은유가 언어의 모든 자유로운 활동의 편재하는 원리인데, 그 대신에 은유가 언어 사용에서 특별한, 예외적인 어떤 것이고 언어의 정상적인 활동 양식에서부터의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쁜 역설이다.

은유가 언어의 편재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관찰에 의해 보여질 수 있다. 우리는 은유없이 평범한 유창한 담화의 세 문장도 마칠 수 없다. 당신이 이 강의 전반을 통하여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정착된 과학의 엄격한 언어에서조차

차도 우리는 큰 어려움이 없이는 은유를 제거하거나 방지하지 못한다.

Richards의 말처럼 은유는 모든 언어 활동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원리이며 예외적인 언어 사용이 아니고, 일상언어의 사용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金鳳柱(1988:212-213)에서는 은유는 유사성도 인접성도 아닌 동일성의 법칙에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은유의 생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령 다리가 <동물의 다리 = 足>라는 개념이라면, (8.4) a.(지게)다리[脚], b.(책상)다리, c.(사진기)다리, d.(안경)다리, e.(삼각형)다리…… 와 같이 이용된다. 이때 a의 다리와 b의 다리는 내포가 동일하지는 않다. 때문에 그 둘을 구분하려면 반드시 a는 지게다리 b는 책상다리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추상에 의하여 서로 다른 징표는 버리고 동일 징표만을 가지고, 가령 <다리>라는 개념의 징표가 (8.5) A.(받치는, 지탱시키는), B.(걸는), C.(아래에 붙는), D.(두개 이상 있는), E.(벌어져 있는), F.(발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있으나, 그 개념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중 한가지 이상을 가지고 사용한다. 한가지 이상의 징표를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으면 그 대상에 동일한 명명을 주는 것이다. 이를 과거에는 유사성에 의한다고 했으나 여기에서는 동일성의 법칙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대상 A와 B가 있으면 그 양자 사이에 징표가 하나 이상 같으면 A를 B에 적용시키기(결과적으로 A와 B를 동일시)때문이다. 예를 들어, (8.6) '갑(사람의 다리) A. 받치는 D. 들 있는', '을(지게 다리) A. 받치는 D. 들 있는'의 경우에 갑과 을에서 서로 다른 징표는 무시한 채 같은 징표만을 추상(추상의 법칙을 적용)하되, 양자를 동일시하여 A의 형태소를 B에다 적용하는 것이다. (8.4) a,b,c,d는 징표(8.5)의 A에 의하여, 또 (8.4)e는 주로 징표(8.5)의 E에 의하여 이용되었다.

앞의 설명에 따르면, 은유는 서로 다른 대상들에서 서로 다른 속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속성만 추상하고, 동일시하여 다른 대상에 동일한 명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은유를 정의하면, 개인적 추상의 언어 사용을 은유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베시는 내 친구다."와 같은 은유 표현의 경우에, 화자는 '베시'라는 대상의 개념과 친구의 개념에서 서로 다른 속성은 무시하고 '친밀감'이라는 동일한 속성만 추상하고 동일시하여 '베시'라는 대상을 '친구'라고 명명한 것이다. S. I. Hayakawa(1964:122)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동일한 반응을 만들어 내는 사물들은 서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도 은유가 동일성의 법칙에 의해 성립되고, 개인적 추상의 언어 사용이 은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은유를 연상작용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는데, 추상이 연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2.3 抽象의 兩面性

우리는 세계에 대하여 사고하고, 서로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부단히 변화하고 동일하지 않은 대상들에 대하여 抽象을 해야하는 필요성을 지닌다. 대상들에 대하여 抽象을 하여 개념을 형성하고 그것에 언어기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는 抽象의 단계성과 방향성에 따라 어떤 대상의 개념은 대단히 다양하게 형성된다.

그런데 抽象의 과정에서 대상들의 개별적인 독특한 속성들은 무시되고 공통 특성만 선택되어, 서로 다른 대상들의 동일성이 두드러지게 제시된다. 이러한 抽象의 특성은 우리가 사고하고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抽象의 誤用潛在性을 수반시킨다. 특히 抽象과 실체의 誤認, 추상의 단계의 혼동과 고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추상의 양면성은 언어의 感化的 用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3.1 抽象, 언어, 실체

인간이 抽象을 실체로 오인하는 사례에 대하여 S. I. Hayakawa(1964:200)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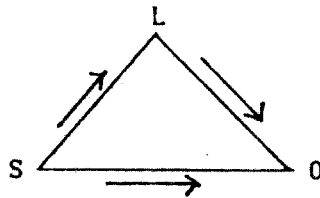
미개사회의 사람들은 자주 이와 같이 행동을 한다. 농사가 못 되거나 혹은 바위가 그들에게 떨어질 때, 장차 농작물이나 바위의 '靈'으로부터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하여, 희생물을 바치고 그 靈들과 타협을 한다. 우리들 역시 유사한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 때때로 의자에 걸리면, 우리는 그것을 차고 욕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못 받을 때 우편 배달부에게 화를 낸다. 이러한 모든 행동에서, 우리들은 머리 속의 추상과 외부를 혼동하고, 마치 그 추상을 외부세계의 사건같이 행동한다. 우리는 머리 속에 악의로 우리를 걸리게 하는 상상의 의자를 만들고, 아무에게도 악의를 가지지 않는 외재적인 의자를 벌준다. : 우리는 편지를 가지고 오지 않는 상상의 추론의 우편 배달부를 만들고, 갖다 줄 편지가 있으면 기꺼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외재적인 우편 배달부를 꾸짖는다.

언어(상징)와 실체(지시물)의 관계에 대하여 C. K. Ogden & I. A. Richards(1923: 제 1장)에서는 다음 도표와 같이 설명한다.



Ogden과 Richards는 상징과 지시물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삼각형의 두 변을 돌아가는 간접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말과 사물 사이에 직접적인 의미관계가 있다고 하는 단순화가 우리들이 사물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부딪치는 거의 모든 곤란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만일 연구제재를 관념과 말, 즉 삼각형의 좌변에만 국한하게 되어 외계의 솔직한 인식이 완전히 결여된다면 지각에 있어서의 知의 성립이나 검증이나 의미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문제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Wheelwright(1962: 제1장)에서는 주체를 S, 언어를 L, 대상을 O로 표시하고, 인간이 지각하고 탐지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기본구조를 다음 도표와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S, L, O가 각기 다른 두 가지 요소를 떠나 독립된 존재로서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현실을 이해하려 할 때에 반드시 언어적 요소가 이를 대신해야 하는 한계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말만 가지고 표현하려 할 때는 언제나 불가피하게 좌절감을 맛보게 마련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언어교육에서 언어는 세상의 실체가 아니고 실체를 추상하여 생성된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가 대상을 언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식하는 상황인 'S→O'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어교육에서의 핵심은 언어를 통한 대상의 인식 방법과 표현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2.3.2 抽象의 단계의 혼동

언어는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보다 더 높은 단계의 추상에 있다. 대단히 높은 단계의 추상에 있는 언어를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 추상의 과정을 더 주의깊게 의식해야 한

다. 2.3.1에서 抽象(개념)과 실체를 혼동하고, 언어와 실체(지시물)의 관계를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것도 추상의 단계를 혼동하는 예이다. 어떤 사람이 과실로 경범죄 처벌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에 “그는 경범죄를 범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과실로’라는 말이 빠져있어 더 높은 추상의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는 전과자다.”라고 말하면 앞의 단계보다 더 높은 추상의 단계에서 ‘그’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이어서, 수많은 속성을 지닌 ‘그’의 실체와는 너무 다르게 추상을 하여, 추상의 단계의 혼동으로 볼 수 있다. 소문이 퍼져 나갈 경우에, 소문의 과장의 대부분은 소문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높은 단계의 추상으로 올라가는 경향에 기인한다. 抽象을 통한 斷定은 추상의 단계의 혼동의 예에 속한다.

2.3.3 抽象의 단계의 고착

어떤 사람은 주로 낮은 추상의 단계에, 어떤 사람은 주로 높은 추상의 단계에 고착하고 있다. S. I. Hayakawa(1964:188-190)에서는 웬델 존슨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여 이것의 폐단을 설명한다.

낮은 단계의 화자가 당신을 좌절시키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준 한 광주리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그 방향을 지시하지 않는 까닭이다. 높은 단계의 화자가 당신을 좌절시키는 것은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렇게 좌절되고 더 나아가 봉쇄되더라도, 예의상(또는 강의의 출석 규칙상) 화자가 끝마칠 때까지,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하므로, 공상이나 낙서를 하거나 또는 잠자는 것 이외에 별로 할 일이 없다.

Hayakawa는 높은 단계의 추상과 낮은 단계의 추상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또 언어적 단계와 비언어적 단계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Ⅲ. 感化的 用法과 抽象의 特性

3.1 感化的 用法의 概念

李庸周(1963:339-341)에서는 인간의 생활 현상은 情意가 우세한 자리를 차지하고, 언어활동의 목적은 表現하여 感化하는 데 있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언어활동이란 요컨대 말하는 사람의 心的 生活 즉 心的 內容의 표현이다. 의도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표현은 다른 목적을 위한 표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하여 자기와 같은 心理內容을 喚起하려는 것이 제1차인 목적인 것이다.

요컨대 언어활동의 일차적인 의도(목적)는 타인의 心的 生活을 感化하는 데 있는 것이다. 표현이란 感化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언어활동은 二重으로 의도적인 기호부여를 행한다.

朴甲洙(1989:253-254)에서는 '感化的'이란 말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것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通達的'이란 개념의 상대어로만 그 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첫째는 '喚起的(喚情的, evocative)'이란 뜻으로 쓰이는 것이다.

둘째는 通達的(informative)의 대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야카와의 견해를 좇은 것이다.

셋째는 象徴的(symbolic)의 대가 되는 情緒的(emotive)과 같은 뜻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넷째는 表現的 價値의 '表現的'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다섯째는 文體的 價値와 같은 뜻으로 쓰는 것이다.

S. I. Hayakawa(1964:82)에서는 언어의 용법을 通達的 用法(informative use)과 感化的 用法(affective use)으로 나누고,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보고의 언어는 성질상 用具的이다. 즉 일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用具的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언어는 화자의 감정의 직접 표현을 위해서도 역시 사용된다. 청자의 관점에서 언어를 고려하면, 보고의 언어는 우리에게 通達하지만 언어의 표현적 용법(예를 들면, 판단과 前記號的 機能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들을 感化한다. - 즉 우리의 감정에 感化를 미친다. 언어가 感化的일 때, 그것은 일종의 힘의 특성을 갖는다.……

'정서적'과 '감동적' 같은 용어들은, 언어의 '정서적 호소'와 '지적인 호소'사이의 잘못된 구별을 함축하므로,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도 '정서적'이란 말은 강한 감정에 너무 특별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언어의 感化的 用法'같은 표현에서의 '感化的'이란 단어는 언어가 강한 감정을 일으키는 방법뿐만 아니라, 극히 미묘한, 때때로 무의식적인 반응들을 일으키는 방법을 서술한

다.

본고에서는 Hayakawa의 感化的 用法的 概念을 좇아 사용하겠다. 즉 이 用法을 화자가 자신의 情意를 표현하여 청자의 情意에 영향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언어의 용법으로 규정하겠다. 청자에게서 강한 감정이나 또는 미묘하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說得的인 담화나 문학작품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2 感化的 用法的 表現 方法

3.2.1 音聲的 要素

李庸周(1959:10-21)에서는 音聲과 리듬의 感化的 效果와 그 表現 方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말이 희로애락을 수반하여 감정적으로 될 때는 그 음성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 音의 高低, 強弱, 長短, 抑揚 등의 여러 가지는 말하는 사람들의 감정 如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음성을 조절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기질이나 감수성을 음성을 통해서 짐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리듬이란 규칙적인 간격으로 청각적 자극을 반복함으로써 생긴 효과에 주어 진 명칭이다. 어린이들이 동동 치는 북소리로부터 고상한 시와 음악의 정묘한 nuance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리듬에 대한 반응의 연속적인 발달과 세련이 있다. 리듬을 일으키는 것은 주의와 흥미를 끈다. 리듬은 매우 감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산만해지기를 원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의 주의를 포착한다.

感化的 用法的 表現 方法으로서 '音聲'에서는 音의 高低, 強弱, 長短, 抑揚 등 音聲 調節의 方法, 자음과 모음의 音相의 차이를 이용하는 方法이 있다. '리듬'에서는 音韻, 音節, 單語, 文法的 構成 등을 반복하는 方法, 定型詩에서처럼 형식적인 여러 가지 규칙을 사용하는 方法이 있다.

3.2.2 意味的 要素

李庸周(1963:345)에서는 語는 문맥 속에서 기본적인 의미와 중첩되지 않는 유일의

문맥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이것 이외에 위에 말한 의미와는 구별되는 價値까지 겹들여서 表現·感化的 機能을 발휘하며, 이것은 文體論的 價値로서 화자의 情意를 표현하는 表現價値와 화자의 환경을 환기하는 喚起的 價値로 나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표현 방법을 李庸周(1963: 350-358)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表現價値

① 語의 意味와 感情價値 ... ② 특수한 語는 그 사회에서 대체로 공통된 感情價値를 가지나 場面이나 文脈에 따라서 그 感情價値가 달라진다. ③ 感歎詞는 感情價値가 강하다. ④ 價値判斷에 관한 語는 대체로 感情性을 띤다. ⑤ 語는 使用如何에 따라서 多少의 差는 있으나 感情性을 나타낸다.

② 比喩的인 方法 ③ 音相과 表現價値 ④ 擬聲語 ⑤ 리듬 ⑥ 기타

2. 喚起的 價値

① 俗語, 隱語 ② 地域語 ③ 專門用語(術語) ④ 外國語(外來語 包含)
⑤ 兒童語와 成人語 ⑥ 男性語와 女性語 ⑦ 新語와 古語 ⑧ Ideologie와 關聯된 語辭 ⑨ 기타

그리고 李庸周는, 表現價値는 相似에 의한 聯合이고 喚起的 價値는 隣接에 의한 聯合인데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言語生活을 일층 인상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것이라고 한다. 表現價値를 표현하는 방법 중 ③ 音相과 表現價値 ④ 擬聲語 ⑤ 리듬 ⑥ 기타 등은 音聲的 要素에 포함시키고, 그 나머지 표현 방법들을 意味的 要素를 이용한 것으로 다루겠다.

朴甲洙(1965: 298-333)에서는 一般意味論의 관점에서 言語의 感化的 用法의 표현 방법으로서, 比喩, 反復, 對偶法(Antithesis), 抽象(Abstraction), 事實(Facts), 諷刺·反語·Humour, 傾向(Slanting), 二值的 思考(Two-valued orientation), 指令, 命名(naming), 斷定(Judgement), 推論(Inference), 內包(內在的 思考, Intensional Orientation), 文脈, 同一視(Identification), 婉曲法(Euphemism), Catch phrase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표현 방법 중에서 '반복'을 제외한 모든 것은 言語의 意味的 要素를 이용한 표현 방법에 속한다. 朴甲洙(1969: 31-51)에서는 일반수사법에 해당하지 않는 一般化, 傾向, 接近, 命名·分類, 曖昧性, 斷定, 二值的 思考, 婉曲法의 여덟 가지 感化的 表現方法을 고찰한다. 이것들은 모두 意味的 要素를 이용한 표현 방법에 속한다.

李庸周(1963)에서 제시된 文體論的 價値를 표현하는 방법들은 대체로 聯想(Association)心理로 설명할 수 있다. 이 文體論的 價値는 언어의 文脈的 意味와 함께 언어의 使用意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朴甲洙(1965, 1969)에서 제시된 표현 방법들은 대체로 抽象(Abstraction)의 精神作用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一般化, 分類, 斷定,

曖昧性, 婉曲法, 接近, 比喩 등은 抽象의 精神作用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음 3.3에서 抽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들 표현 방법들을 抽象의 段階性과 方向性이라는 抽象의 특성을 활용하여 일관성 있게 설명하여, 언어의 感化的 用法의 표현 방법에서 意味的 要素를 이용한 표현 방법들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추상이라고 밝히겠다.

3.3 抽象의 特性의 活用

3.3.1 一般化

언어는 抽象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抽象은 一般化를 수반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一般化는 언어 본래의 속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실제 세계의 事象에 대한 一般的인 陳述을 뜻한다. 언어의 用法에 따라 一般化도 通達的인 것과 感化的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학에서의 一般化는 합리적으로 많은 대상들에서 공통성을 추출하여 성립되었으므로 通達的이다. 그런데 인간생활에서의 모든 대상들이 과학적으로 一般化되기 어렵고, 특히 인간의 情意가 관련된 陳述은 과학적으로 一般化되기 곤란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거나 경험한 소수의 대상들에서 공통성을 추출하여 더 높은 抽象의 단계에서 一般化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一般化는 대상이 된 부분적인 것이 전체적인 것을 상대방에게서 喚起하여 상대방을 感化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一般化는 感化的인 것이다.

자주 드는 예로서, 영국 여왕 대관식 때 있었던 “영국은 여왕 시대에 번영하므로 밝은 내일이 약속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영국 역사상 두 번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여왕 시대’로 일반화하여 번영이 필연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독자를 感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朴甲洙: 1969) 이러한 一般化의 예는 우리들의 대화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게서 들은 의견을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은 ……하다고 생각한다.”는 표현을 한다. 어떤 사람은 유럽 여행을 한 번 했는데 “독일의 운전기사는 하이클래스이어요.”라고 말한다. 특히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속성에 대하여 말할 때 “그 사람들은 다 그래.”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 버스는 기다릴 땐 잘 안오고, 안 기다릴 땐 잘 온다.”는 말도 자주 한다. 어떤 사람은 TV 노래자랑 시간에 나이 차이가 한두 살인 부부가 다정하게 노래하는 것을 보고 “나이 차이가 적은 부부가 화목하다.”라는 말을 한다. “나는 대학 입시에 두 번이나 실패하였다. 따라서 나는 인생에서 실패하였다.”, “현행 교육 제도는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은 되는 일이 없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기적이다.”, “여자가 똑똑하면 팔자가 사납다.” 등등의 感化的 用法의 一般

化的 예를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一般化는 소수의 대상을 높은 추상의 단계에서 파악하여 한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이 소수의 대상이 속한 부류 전체에 적합하다고 표현하는 방법이다. 즉 抽象의 段階性을 이용한 표현 방법이다.

3.3.2 分類

우리는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한 대상에 대하여 命名하고, 또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테두리 속에 넣는 분류를 한다. 분류의 기준은 사람들이 선택한 추상의 방향과 추상의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대상을 분류하게 되면, 그 대상의 독자적인 개별성들은 간과되고 분류된 부류의 내포만이 부각되어 상대방을 感化할 수 있다.

다음 대화의 예에서 分類 표현의 感化性에 대하여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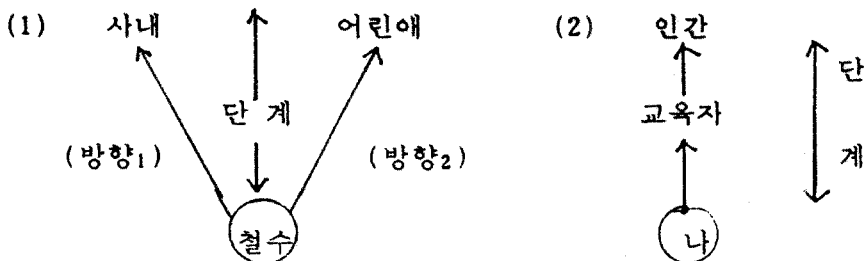
(1) A : 철수야, 사내녀석이 왜 그렇게 우느냐?

B : 아직 어린애잖아요.

(2) A : 당신은 교육자입니다.

B : 나는 교육자이기 전에 한 인간입니다.

앞의 대화(1)에서 A는 철수를 '사내'라는 부류에 넣어서 철수의 여러 가지 속성 중 사내로서의 속성만을 부각시키고 B는 철수를 '어린애'라는 부류에 넣어서 어린애로서의 속성을 부각시켜서, 동일한 대상 '철수'의 개념(의미)이 화자가 택한 추상의 방향과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화(2)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 대화의 예에서는 서로 다른 대상들이 동일한 부류로 분류됨으로써 생성되는 感化的 效果를 발견할 수 있다.

(3) A : 계약을 빨리 이행하시오.

B : 우리 같은 월급쟁이인데, 사정 좀 봐주세요.

앞의 대화(3)에서 두 사람 A, B는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데, B는 A를 자기와 동일한 '월급쟁이'라는 부류로 분류함으로써, 자기의 心的 內容과 동일한 心的 內容을 A에게 喚起하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의도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같은 동포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다."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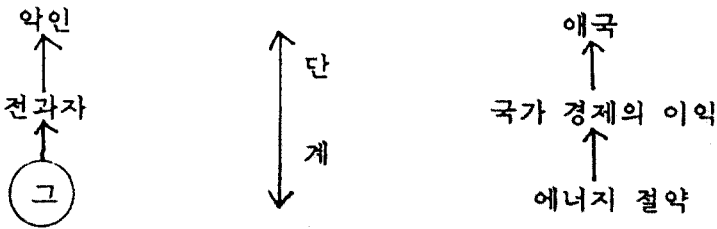
3.3.3 斷定

斷定은 필자(화자)가 記述하는 사건, 사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찬성 또는 불찬성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報告(report)에서는 "그것은 대단히 좋은 차였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은 5만 마일을 달린 차인데 한번도 수리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사실'의 진술이라고 생각한다. "책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재리는 도둑이다.", "토미는 영리하다." : 그러나 보통 사용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말은 첫째는 推論(책이 달리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그 사실을 틀리게 말하였다.)을 포함하고, 둘째는 斷定(화자는 책이 행하였다고 추론한 것에 대하여 비난한다.)을 포함한다. 다른 두 예에서도, "재리는 절도죄로 선고받고 워튼 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했다.", "토미는 바이올린을 연구하고, 학교에서 그의 학급을 이끌고, 토론부의 주장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대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도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도둑질을 하였다. 그리고 다시 도둑질을 할 것이다."라고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報告라기보다 오히려 예언이다. (S. I. Hayakawa 1964:42-43)

斷定가운데 강한 마술을 작용한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價値判斷에 대한 서술의 斷定이다. 이것은 외계에 대해 무엇을 언급하는 것 같지만 의미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아니한 斷定이다. 斷定은 인간의 抗爭을 빚어내지만, 한편 높은 抽象의 價値判斷을 함으로 論理的으로 다소 이상하더라도 감정이 작용하여 뭉뚱그려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강한 感化力을 지닌다. (박갑수 1969: 43-44)

인간의 언어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感化하는 데 있고, 인간의 認知와 情意는 함께 작용하므로, 分類와 斷定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는 전과자다."라고 말하는 경우에, 이것은 그가 전에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知的인 判斷에 대한 진술일 수도 있지만, 그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어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情意的인 判斷을 함축한 斷定일 수도 있다. 우리는 1991년 기초지방의회 선거 때에 입후보자들 중 상당수가 전과자라는 보도에 접해서 매우 놀랐고, 그후

에 그들의 형벌이 대부분 경미한 것이라는 보도에 다소 안심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전과자'라는 말은 높은 抽象의 단계에서 형성된 언어이어서, 낮은 抽象의 단계에 속하는 사실적 서술과 매우 다른 感化性을 띠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은 애국이다."라는 말은 "에너지 절약은 국가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준다."라는 말보다 높은 抽象의 단계에서의 서술이고 斷定的 성격이 더 강하다. 斷定은 높은 抽象의 단계에서 情意的인 判斷을 함으로써 형성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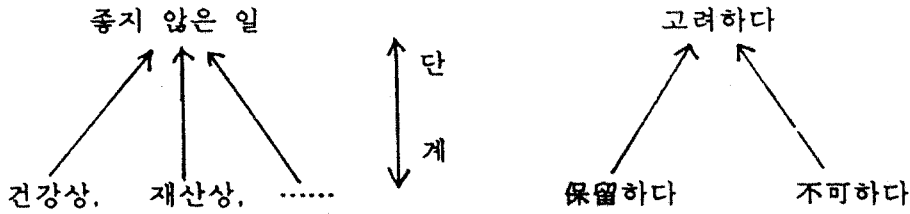


3.3.4 曖昧性과 婉曲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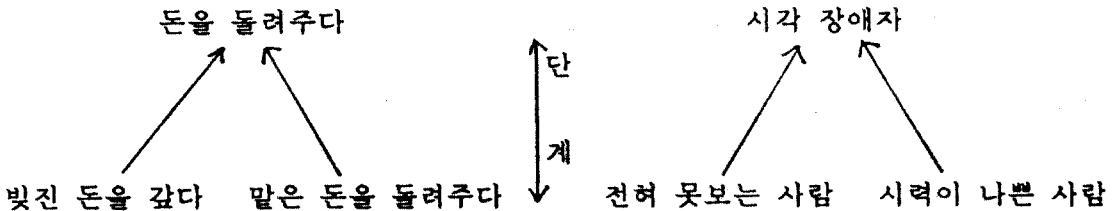
世界의 事象은 무한하고 연속적이지만 인간이 사고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유한하고 분절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언어의 개념과 기호는 曖昧性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실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피하고 曖昧하게 표현하는 경우, 즉 낮은 抽象의 단계에서의 언어 표현 대신에 높은 抽象의 단계에서의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曖昧性을 띠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사용된 언어표현도 感化的 效果를 지닐 수 있다.

- (1) A : 무슨 일이 있었니?
 B :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
- (2) A : 이 일 좀 부탁드립니다.
 B : 고려해 보겠습니다.

앞의 대화(1)에서 B는 분명하게 무슨 일인지 대답하지 않고, (2)에서 B는 그 일에 대하여 可否를 좀더 생각하여 보겠다는 것인지 안되겠다는 것을 애매하게 대답한 것인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제시할 수 있다.



婉曲法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不安感, 不快感을 聯想하게 하는 말을 피하고, 그러한 感情이 적대 드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婉曲法은 曖昧性을 띤 표현과 관계가 깊고, 높은 抽象의 단계의 표현으로 된 것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교양이 없다'를 '젊다'로, '틀리다'를 '잘못 생각하다'로, '빚 갚다'를 '돈을 돌려주다'로, '격론을 벌이다'를 '진지하게 이야기하다'로, '조사하다'를 '물어보다'로, '맹인'을 '시각 장애자'로 말하는 것 등은 높은 抽象의 단계의 표현을 함으로써 새로운 感化性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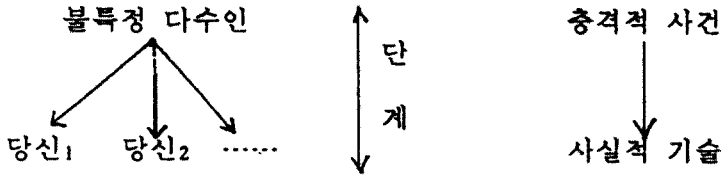
3.3.5 接近과 事實的 記述

Mass Communication을 Personal Communication처럼 표현하거나 객관적 서술을 직접 대화하듯 표현하는 방법을 接近法(approaching)이라 부른다. 이것은 광고나 선전문에서 '당신'이나 '여러분'이란 말을 사용하여 개인적 친숙미를 노리며, 나아가 그것이 다름아닌 자기의 경우로 착각하게 하는 마술인 것이다. (朴甲洙 1969: 36) 선전매체를 대하는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모두 모인 전체의 소비자나 전체의 대중에게 선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낮은 抽象의 단계에서 파악하여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생생한 事實的 記述를 읽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事實的 記述은 더 낮은 抽象의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記述되어 더욱 강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 사건은 충격적 사건이다."라고 斷定을 하지 않더라도 독자들이 스스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感化的 效果가 있다.

接近과 事實的 記述의 표현 방법은 낮은 추상의 단계에서 어떤 대상을 파악하여 표

현함으로써 感化性을 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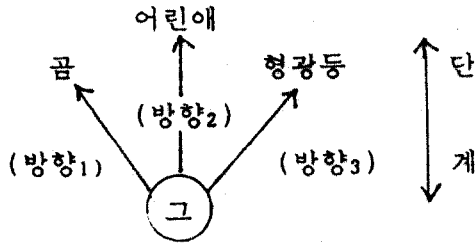


3.3.6 比喩

比喩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 자주 쓰이고, 그 感化的 효과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比喩 중에서 隱喩를 중심으로 抽象의 방향과 段階라는 抽象의 特性의 관점에서 설명하겠다. 比喩 중에는 독자나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전선을 통해 전기가 흐르는 것을 파이프를 통해 물이 흐르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그 예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을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에 비유함으로써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상대방을 知的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感化的 用法이라기보다 通達的 用法의 표현 방법이다. 感化的 표현 방법으로서의 비유에는 화자의 認知와 情意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隱喩에 대한 접근 방법은, 隱喩를 언어의 창조성의 본질적 특성으로 파악하는 構成主義(constructivism)와 隱喩를 정상적인 용법에서 이탈하고 기생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非構成主義(nonconstructivism)으로 대별된다. (A.Ortony 1979: 2)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 比喩가 자주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構成主義的 접근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非比喩的 표현과 比喩的 표현을 동일하게 抽象의 特性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앞에서 논한 2.2에서 抽象의 方向을 사회적으로 공인된 방향과 개인적으로 선택한 방향으로 크게 나누고, 개인적 抽象의 언어 사용을 隱喩라고 했다. 동일한 대상이라고 기준이 되는 공통 속성의 방향에 의해 그 개념이 달리 형성된다.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는 文脈과 狀況 속에서 수많은 속성 중 특정한 속성이 현저해지면서 분명하게 결정된다. 隱喩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두 대상의 수많은 속성 중에서 隱喩使用者가 선택한 동일한 속성이 현저해지면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순하고 판단이 늦은 성인을 보고, 사람에 따라서 “그는 꿈이다.”, “그는 어린애다.”, “그는 형광등이다.” 등의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 화자의 認知와 情意的 態度에 의해서 ‘그’의 속성과 ‘꿈, 어린애, 형광등’의 속성 중 공통되는 것이 선택되어 다양한 표현들이 형성된다. 이것을 다음의 도표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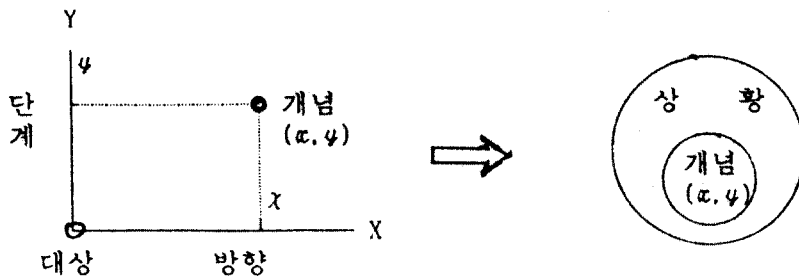


대상 '그'의 속성 중 '미련하다'를 택하여 그것이 '곰'의 속성 중 어느 한 속성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방향₁의 抽象을 한 것이고, 높은 抽象의 단계에서 '그'와 '곰'은 同一視한 것이다. 방향₂는 대상 '그'의 속성 중 '단순하다'를 택하여 '그'를 '어린애'와, 방향₃은 '회전이 늦다'를 택하여 '형광등'과 높은 抽象의 단계에서 同一視한 것이다. 隱喩는 어떤 대상을 어떤 부류에 속하게 하는 分類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그 기준이 개인적인 心的 態度에 의지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隱喩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은 抽象의 단계에서 同一視하여 언어로 표현한 것이고, 그 때 개인적으로 선택한 공통 속성은 隱喩 표현의 의미 해석에 기본이 된다.

IV. 結 論

본고에서는 효과적인 언어 사용을 하기 위하여 언어사용자들이 알아야 하는 언어의 感化的 用法的 표현 방법들을 抽象의 特性을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本論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2 장 :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은 언어사용자가 선택한 抽象의 段階(Y)와 抽象의 方向(X)의 두 축에 의해서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개념은 언어적 차원에서의 사용된 언어의 의미가 되고, 언어사용자의 의도를 고려한 차원에서의 사용된 언어의 의미는 이 개념과 더불어 언어가 놓인 상황에 의해서 분명히 결정된다. 따라서 사용된 언어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에 抽象의 段階와 方向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3 장 : 感化的 用法의 표현 방법 중 一般化, 分類, 斷定, 曖昧性, 婉曲法, 接近, 事實的 記述, 比喩(隱喩) 등을 抽象의 段階性과 方向性으로 설명하였다. 接近과 事實的 記述은 낮은 抽象의 段階에서, 나머지는 높은 抽象의 段階에서 어떤 대상의 개념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分類와 隱喩는 특히 抽象의 方向性과 관련이 깊은 표현 방법인데 前者의 方向은 社會的인, 後者의 方向은 個人的인 傾向을 띤다. 따라서 抽象의 特性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感化的 表現을 할 수 있다.

본고의 미비한 점으로는 抽象과 여러 언어 단위들(형태소~담화)의 의미 형성 관계를 좀더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感化的 用法의 표현 방법들(특히 比喩)을 실제 사용된 예를 많이 수집하여 좀더 포괄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 參考 文獻 >

- 金鳳柱(1988), 개념학, 한신문화사.
- 朴甲洙(1965), '言語의 感化的 用法의 考察(上)', 국어교육10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_____ (1969), '國語의 感化的 表現攷',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제1집.
- _____ (1989), '言語의 感化的 表現', 제효이용주박사 회갑기념논문집.
- 李德行(1984), '비유문 指導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庸周(1959), '國語의 感化的 用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63), '表現性의 Mechanism', 국어교육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李乙煥·李庸周(1975), 國語意味論, 현문사.
- Hayakawa, S.I.(1964),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 Jespersen, Ott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 Ogden, C.K. & Richards, I.A.(1923), The Meaning of Meaning. 金鳳柱 譯(1986), 意味의 意味, 한신문화사.
- Ortony, Andrew. ed.(1979),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I.A.(1981 [1936]), 'The Philosophy of Rhetoric, Lecture v Metaphor', in Johnson, M.ed.(1981),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Metaphor,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heelwright, Philip(1962), Metaphor and Reality. 金泰玉 譯(1982), 隱喩와 實在, 문학과 지성사.